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메가터치 (446540)

2차전지 Pin의 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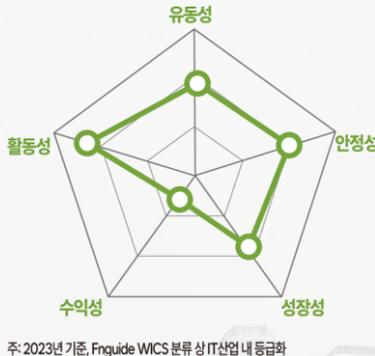
체크포인트

- 국내 배터리 3사에 시장 점유율 100%를 확보. LG에너지솔루션은 8월부터 오창 공장에서 4680 셀 양산 시작. 삼성SDI와 SK온도 4680 배터리 관련 사업 추진 중. 규격 변화와 고객사들의 양산, 그리고 중장기적인 고객사 CAPA 확대에 따라 총방전용 테스트 Pin 성장도 기대
-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동사의 반도체 테스트 Pin 매출 반등이 기대. Foundry와 OSAT 업체 가동률이 증가하고 칩 출하량이 증가하는 만큼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도 확대
- 2024F 매출액 605억원(+20.6% YoY), 영업이익 71억원(흑자전환 YoY)을 전망. 전기차 수요 성장을 둔화에 따라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은 당초 계획대비 CAPEX를 조절 중. 반도체 부문은 전반적인 수요 개선에 힘입어 매출액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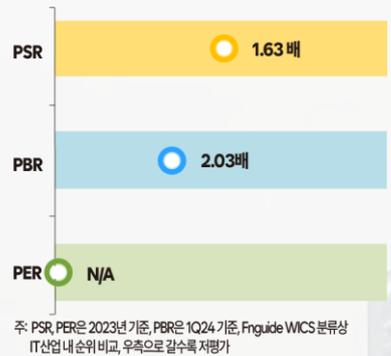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Analyst 박성순 sspark@kirs.or.kr

RA 박서연 seoyeon@kirs.or.kr

2차전지 및 반도체 Pin 제조 업체

동사는 2010년에 설립된 2차전지 충방전용 테스트 Pin과 반도체 테스트 Pin 업체. 1Q24 기준 매출 비중은 2차전지 충방전용 테스트 Pin 48.7%, 반도체 테스트 Pin 41.9%를 보임

배터리 규격 변화에 따른 Pin 수요 증가 기대

동사의 2차전지 충방전용 테스트 Pin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에 따른 동반 성장이 기대. 동사는 국내 배터리 3사에 시장 점유율 100%를 확보하고 있으며 Panasonic의 Tesla향으로도 공급. 충방전용 테스트 Pin은 약 3년 정도의 교체 주기를 가지고 있으나 배터리 규격이 교체 주기보다 빠르게 변경되며 신규 테스트 규격에 맞는 Pin으로 교체. 원통형 배터리는 현재는 4680으로 전환되는 추세. LG에너지솔루션은 8월부터 오창 공장에서 4680 셀 양산을 시작. 삼성SDI와 SK온도 4680 배터리 관련 사업을 추진 중. 규격 변화와 고객사들의 양산, 그리고 중장기적인 고객사 CAPA 확대에 따라 동사의 2차전지 충방전용 테스트 Pin 성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동사의 반도체 테스트 Pin 매출 반등이 기대. Foundry와 OSAT 업체 가동률이 증가하고 칩 출하량이 증가하는 만큼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기 때문에 동사의 테스트 Pin 물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2024년 흑자전환 예상

2024F 동사의 매출액 605억원(+20.6% YoY), 영업이익 71억원(흑자전환 YoY)을 전망. 전기차 수요 성장을 둔화에 따라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은 당초 계획 대비 CAPEX를 조절 중. 따라서 동사의 2차전지 Pin 수요 증가폭도 제한되어 2차전지 부문 매출액 +3.0% YoY 성장 전망. 반도체 부문은 전반적인 수요 개선에 힘입어 매출액 증가가 기대. 현재 AI 중심 수요 강세에서 하반기에는 On-Device PC, 스마트폰의 수요도 증가할 것.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217억원으로 +64.8% YoY 증가 전망. 수익성 측면에서는 반도체 부문의 매출액 회복에 힘입어 영업이익률 11.7%를 예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억원)	316	395	490	501	605
YoY(%)	-2.4	25.0	24.3	2.2	20.6
영업이익(억원)	17	25	81	-3	71
OP 마진(%)	5.5	6.3	16.5	-0.5	11.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6	34	66	-1	66
EPS(원)	106	222	427	-5	317
YoY(%)	-65.6	109.6	91.8	적전	흑전
PER(배)	0.0	0.0	0.0	N/A	15.3
PSR(배)	0.0	0.0	0.0	1.7	1.7
EV/EBITDA(배)	2.1	1.6	1.1	46.9	7.0
PBR(배)	0.0	0.0	0.0	2.1	1.8
ROE(%)	11.6	20.7	30.6	-0.2	12.3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7/19)	4,850원
52주 최고가	7,110원
52주 최저가	4,300원
KOSDAQ (7/19)	828.72p
자본금	104억원
시가총액	1,007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1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39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2억원
외국인지분율	39.0%
주요주주	티에스이 외 2인 57.4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6.5	-3.4	
상대주가	-13.3	-1.8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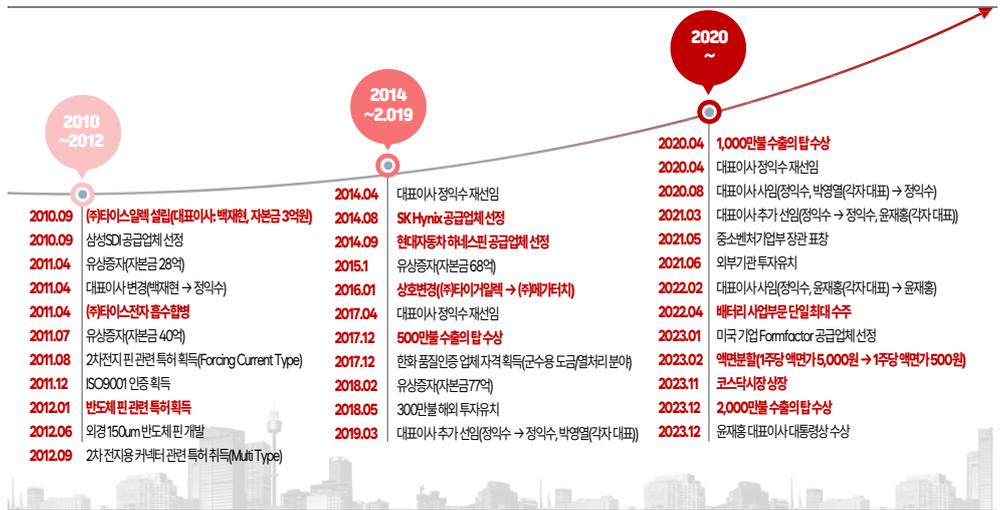
1 배터리 및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품 솔루션 기업

메가터치는 2차전지 및 반도체 테스트용 PIN 제조 업체로, 2010년 설립 후 2023년 코스닥 상장

메가터치는 배터리 충방전용 테스트 PIN 과 CLIP, 반도체 TEST용 PROBE PIN, ICT PIN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동사는 2010년 9월 (주)타이스일렉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해 삼성 SDI 공급업체 선정, (주)타이스전자 흡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의 기반을 다졌으며, 이듬해인 2011년에 2차전지 PIN 관련 특허를, 2012년에 반도체 PIN 관련 특허를 획득하며 2차전지/반도체 테스트용 PIN 개발 업체로 자리잡았다. 2014년에는 SK하이닉스 공급업체 및 현대자동차 하네스 PIN 공급업체로 선정되며 제품 기술 고도화와 공정 수율 확보를 달성하였고, 2016년에는 (주)메가터치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0년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외부 기관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을 도모하였다. 2023년에는 중국의 배터리 장비 기업 항커전자로부터 1,200만 달러라는 배터리 사업부 문 단일 최대 수주를 달성하며 2차전지 고객사의 성장과 함께하고 있다. 동년도 11월 9일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핵심 기술 지속 개발/새재화와 고객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메가터치 연혁 (기업개요 엑셀파일 참고)



자료: 메가터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주요 사업 및 매출 구성

1Q24 기준 매출 비중은 2차전지 충방전용 테스트 Pin 48.7%, 반도체 테스트 Pin 41.9%, 기타 9.4%

동사의 주요 사업은 2차전지 충방전용 테스트 Pin과 반도체 테스트 Pin이다. 1Q24 기준 매출 비중은 2차전지 충방전용 테스트 Pin 48.7%, 반도체 테스트 Pin 41.9%, 기타 9.4%를 보였다. 주요 고객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파나소닉, 티에스이, Winway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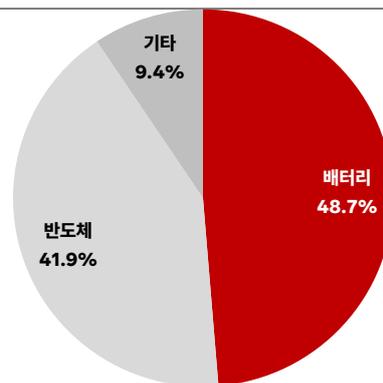
2차전지 충방전용 테스트 Pin

2차전지 충방전용 테스트 Pin은 배터리 제조공정인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중에서 활성화 공정에서 사용된다. 활성화 공정은 조립이 완료된 2차전지 셀을 초기화하여 배터리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의 특성을 부여하려면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배터리 셀을 처음 충전하면 음극과 전해질 사이에 화학적 반응이 처음 발생하며 이를 통해 고체 전해질 계면(SEI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층이 형성된다. SEI는 전해질의 추가 반응을 방지하는 것을 도와 전자의 이동을 막고 리튬이온만 통과하는 또 하나의 분리막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조립공정 마지막에서 투입된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배터리를 보관하는 과정인 에이징 이후 충방전을 반복한다. 활성화 공정 이후 검사장비를 통해 배터리의 불량률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2차전지는 양극과 음극의 쇼트로 배터리 화재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검사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동사의 제품은 배터리 활성화 공정 또는 검사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검사 공정에 적용된다.

반도체 테스트 P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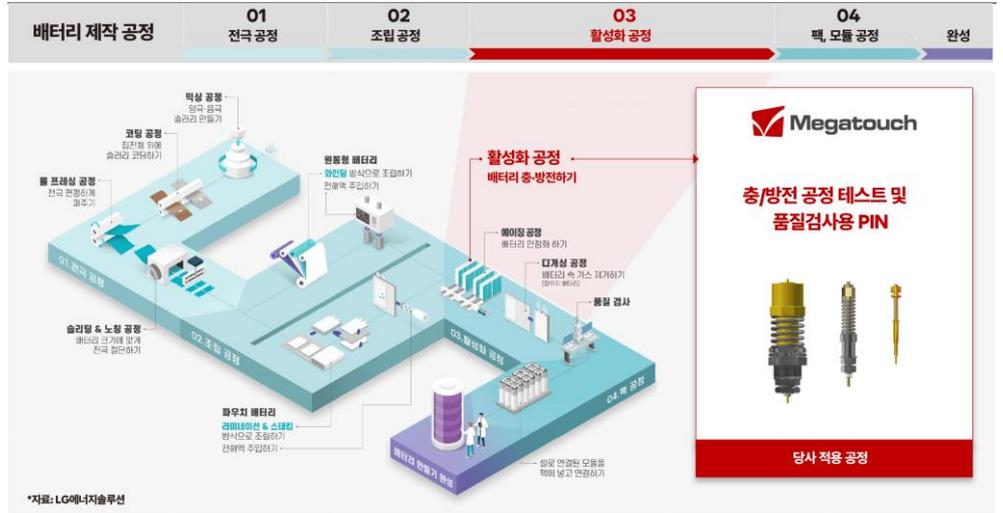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에 사용되는 Pin을 제조한다. 비메모리 비중이 높으며 패키지 테스트 Pin의 매출 비중이 높다. 테스트 소켓은 패키지의 최종적인 불량유무를 검사하는 단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소모성 부품으로 Test Board와 Package 사이의 interface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소켓은 다수개의 포고핀(Pogo Pin)을 모아 모듈화 한 제품이다. Probe Card는 반도체 전공정 이후 웨이퍼 검사에 사용되는 검사 부품으로 테스트 장비와 웨이퍼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테스트하는 데 사용된다. Probe Card는 신호전달 매개체인 PCB와 Chip의 각 Pad에 직접 접촉하는 Pin(Needle)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출 비중(2024년 1분기 기준)



자료: 메가터치,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차전지 충방전용 테스트 Pin 적용 공정



자료: 메가터치,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테스트 Pin 적용 공정



자료: 메가터치,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주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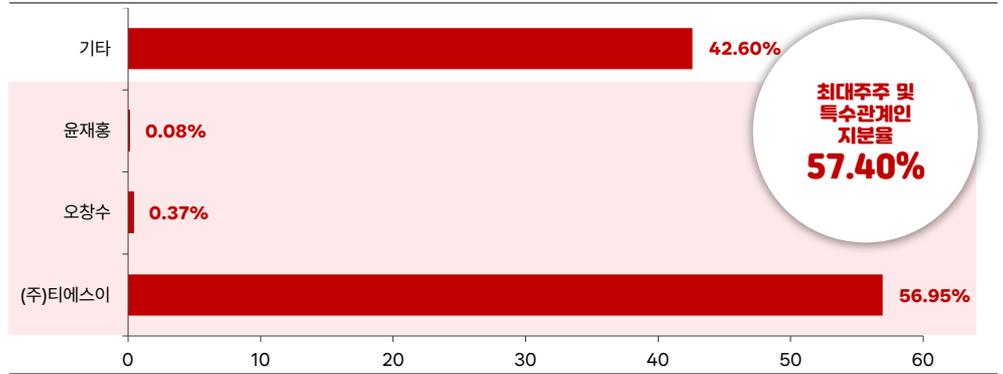
최대주주는 (주)티에스이로
지분 57.0%를 보유

2024년 1분기말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티에스이로 지분 57.0%를 보유 중이다. 티에스이 외 자연인 주요 주주는 티에스이의 전 대표이사 오창수(0.4%)와 메가터치 대표이사 윤재홍(0.1%)이다. 1995년 8월 설립된 티에스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메가터치 외에도 (주)타이거일렉(43.7%), 메가센(65.4%), 지엠테스트(82.0%), 엘디티(29.7%) 등 코스닥 상장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티에스이의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전공정이 완료된 웨이퍼 검사를 위한 핵심 부품인 Probe Card, 후공정의 최종 검사단계에서의 핵심 역할을 하는 Interface Board 및 비메모리 반도체용 Load Board, Interface Board의 top면에 장착되어 최종적으로 패키지와의 전기적 선로를 만들어 주는 테스트 소켓, OLED/LED의 전기적/광학적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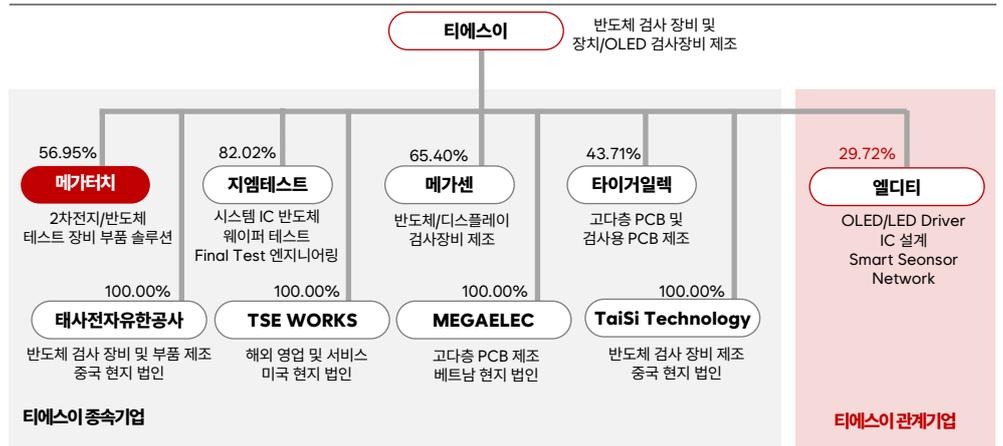
성을 검사하기 위한 토탈 테스트 솔루션 등이 있다.

(주)메가터치 주주구성(2024년 1분기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최대주주 (주)티에스이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현황(2024년 1분기말 기준)



자료: Dart, 메가터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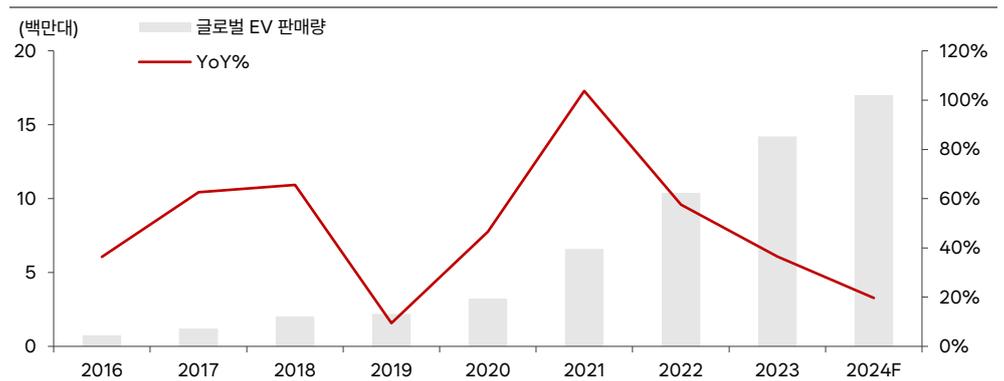
1 전기차 성장을 둔화 영향권인 2차전지

20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크게 증가했지만, 2024년은 정책 요인 및 캐즘 현상에 의해 성장세 둔화 전망

2차전지의 가장 큰 시장은 EV이다. 2023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420만대로 +36.5% YoY 증가하였으며, 전체 차량의 18%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전세계 전기차 판매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유럽 25%, 미국 10%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인해 +5% 성장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전기차 가격 인하 덕분에 Tesla의 Model Y와 같은 인기 전기차 모델이 2023년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독일에서는 2023년 초에 PHEV 보조금이 중단되었고, 2023년 12월에 모든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되어 전체 전기차 판매 비율이 2022년 30%에서 2023년 25%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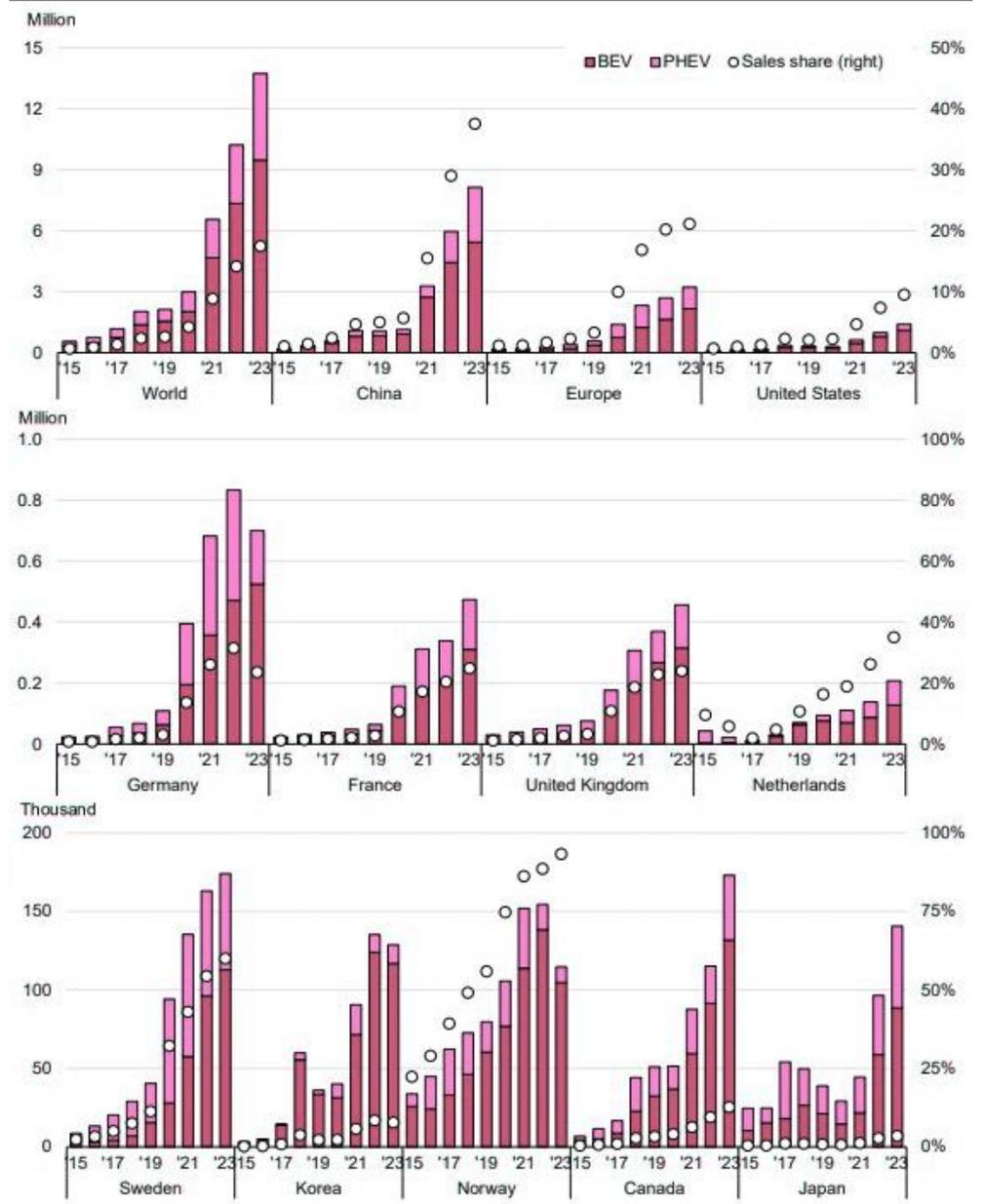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700만대로 +19.7% YoY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차량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1Q24 전기차 판매량은 300만대로 +25% YoY 성장하였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의 성장률은 둔화하였다. 최근 전기차 관련하여 보조금 축소 등 비우호적인 정책도 수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에 비해 여전히 비용 효율성이 높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캐즘(Chasm)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전기차의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주행 거리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대중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캐즘은 신기술이나 혁신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s) 그룹에서 대중 시장(mainstream market)으로 넘어가는 데에 존재하는 큰 간격이나 장애물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인 전기차의 수요 전망은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선호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



자료: IE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가별 전기차 등록대수 및 판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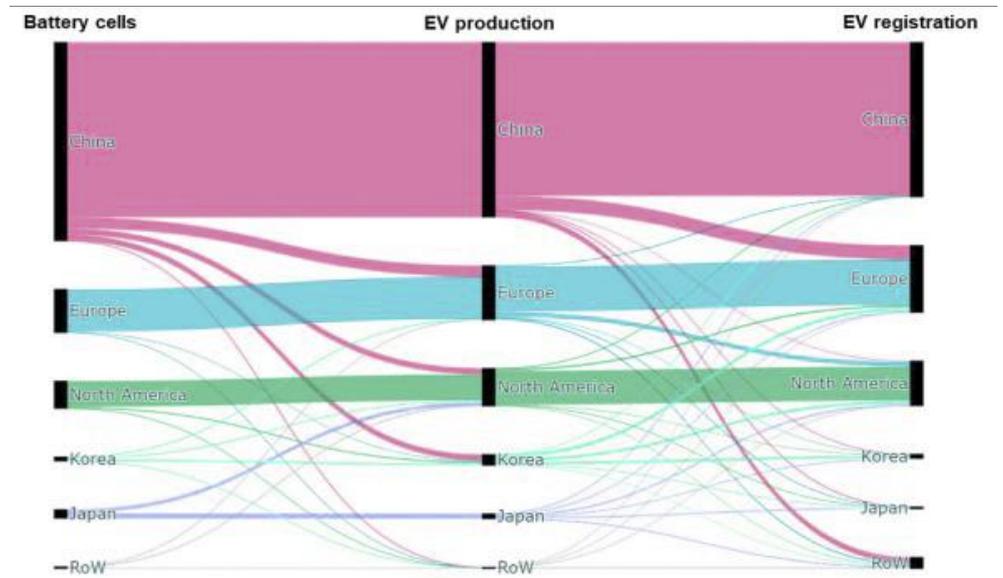
자료: IE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3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은 중국이 주도, 유럽과
미국은 일부 수입 의존**

전기차 판매의 증가로 인해 배터리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3년 EV 배터리 수요는 750 GWh로 +40% YoY 증가하였다. EV와 관련된 배터리 수요 증가의 95%는 EV 판매 증가로 인한 것이며, 약 5%는 전기차 판매에서 SUV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배터리 크기가 커진 결과였다.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제조 능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도 배터리 제조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각각 2023년에 110 GWh와 70 GWh의 제조 능력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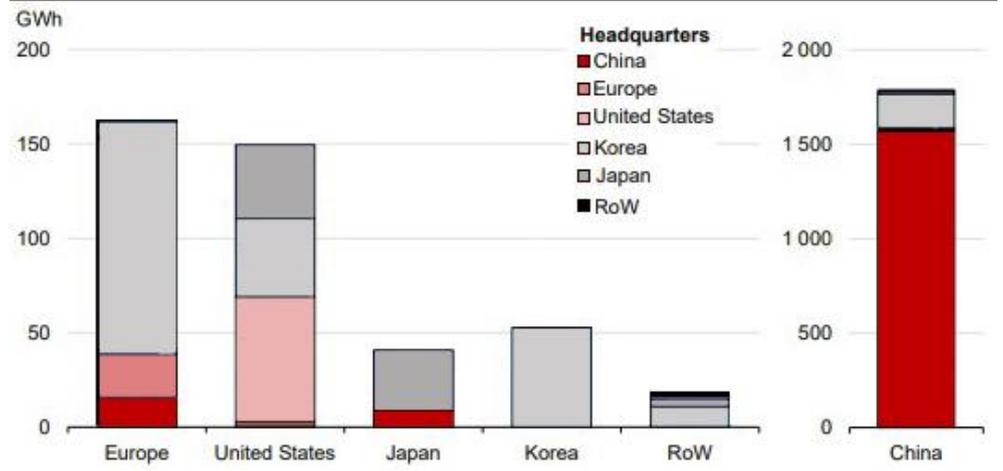
2023년 전 세계 EV 배터리 제조 능력은 약 2.2 TWh로 전세계 수요는 CAPA의 34% 수준이다. 이는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때문이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대부분은 중국, 유럽, 미국에서 국내 또는 지역 생산으로 충족할 수 있으나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입 비중이 여전히 크며, 각각 20% 이상과 30% 이상이 수입으로 충당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수출국으로 약 12%의 전기차 배터리를 수출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추가적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 능력 발표는 주로 아시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 외부에서 350 GWh 이상의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일본 외부에서 57 GWh, 중국 기업들은 중국 외부에서 거의 30 GWh의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의 기존 제조 능력의 약 75%는 한국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미국의 제조 능력은 현재 Tesla, Panasonic,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기업이 주도한다. 중국의 제조 능력은 여러 제조업체에 걸쳐 더 분산되어 있지만 CATL, BYD, Gotion 세 개의 주요 생산업체가 국내 제조 능력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리튬이온 배터리 및 전기차 글로벌 무역 흐름



자료: IE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제조업체 본사 위치에 따른 지역별 리튬이온 배터리 셀 CA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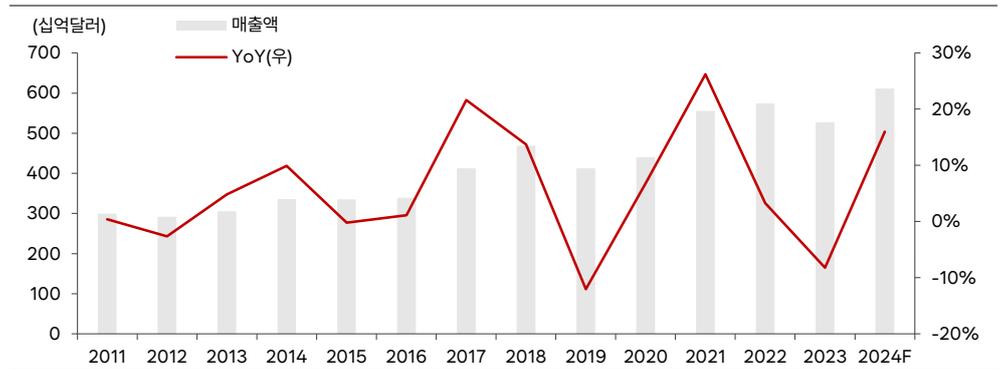
자료: IE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CAPA 증설

가격 하락폭 컸던 메모리 중심의 P 상승으로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16.0% YoY 성장 전망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3년 5,269억 달러에서 2024년 6,112억 달러로 +16.0% YoY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28.9% YoY 감소하였던 메모리 시장은 2024년 1,632억 달러로 +76.8% YoY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메모리 시장은 4,481억 달러로 +3.1% YoY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메모리 중 Logic 시장은 +10.7% YoY 성장하여 1,9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Q 증가보다는 2023년 가격 하락폭이 컸던 메모리 중심의 P 상승이 반도체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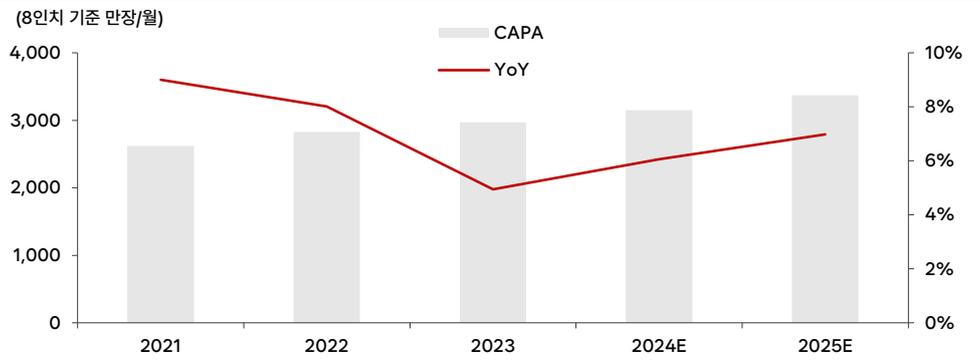
자료: WST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 확산과 첨단 공정 기술 도입이 글로벌 반도체 Fab CAPA 생산 능력 증가 견인

2024년 글로벌 반도체 Fab 생산 능력은 8인치 웨이퍼 환산 기준으로 +6% YoY 성장하여 3,150만장/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은 +7% YoY 성장한 3,370만장/월이 전망된다. 5nm 이하 최첨단 공정 능력은 2024년에 +13% YoY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데이터 센터 학습 및 추론과 최첨단 장치를 위한 생성형 AI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TSMC, Intel 등 칩 제조사들은 2nm Gate-All-Around(GAA)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5년 전체 최선단 생산 능력은 1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중국 기업의 생산 능력이 2024년 월 885만장/월으로 +15% YoY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025년에는 +14% YoY 증가하여 1,010만장/월으로 전체 반도체 CAPA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잉 생산이라는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 통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기 때문이다. 화흥반도체, Nexchip, Sien Integrated, SMIC를 포함한 주요 파운드리 공급업체들과 DRAM 제조업체 CXMT가 중국 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대만은 +4% YoY 성장하여 580만장/월으로, 한국은 +7% YoY 성장하여 540만장/월로 성장할 전망이다. Intel의 파운드리 투자와 중국의 CAPA 확대로 Foundry 생산 능력은 2024년 +11% YoY, 2025년 +10% YoY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DRAM은 HBM 수요 증가로 2024년, 2025년 +9%씩 증가하며, NAND는 올해는 CAPA 증가가 없는 반면 2025년은 +5% YoY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확산이 고성능 칩에 대한 개발 경쟁을 촉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제조 역량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CAPA (8인치 웨이퍼 환산)



자료: SEMI,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신규 규격 배터리 생산에 따른 Pin 수요 확대 기대

동사는 배터리 충방전용 테스트 Pin 시장의 선두, 4680 원통형 배터리 도입 확대에 따른 동반 성장 기대

동사의 2차전지 충방전용 테스트 Pin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에 따른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동사의 제품은 배터리 활성화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로 공급되나, 엔드 유저인 배터리 Cell 업체들이 개발단계부터 협업하는 만큼 시장 선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동사는 국내 배터리 3사에 시장 점유율 100%를 확보하고 있으며 Panasonic의 Tesla향으로도 공급되고 있다. 충방전용 테스트 Pin은 약 3년 정도의 교체 주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배터리 규격이 교체 주기보다 빠르게 변경되며 신규 테스터 규격에 맞는 Pin으로 교체하게 된다.

원통형 배터리는 초기 18650에서 2170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4680으로 전환되고 있다. 4680은 지름 46mm, 높이 80mm로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를 크게 개선한 배터리이다. 더 넓은 표면적을 통해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하고, 탭리스 디자인으로 열 관리를 개선했다. 4680 배터리는 2020년 Tesla가 자체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Tesla가 사이버트럭에 적용하는 4680 배터리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와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으나 수출 이슈로 외부 업체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8월부터 오창 공장에서 4680 셀 양산을 시작하며 초기 생산 능력은 연간 8GWh 규모로 11만대의 전기차에 공급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36GWh 설비를 추가 구축하여 2026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Panasonic은 미국 캔사스 공장 투자 확대를 통해 4680 배터리를 양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와 SK온도 4680 배터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배터리 규격별 비교

구분	18650	2170	4680
지름(mm)	18	21	46
높이(mm)	65	70	80
부피(mm ³)	16,540	24,245	132,952
무게(g)	45	70	320
차량 대당 셀 수(개)	7,104	4,416	960
에너지 밀도(Wh/kg)	240	260	300
에너지 용량(mAh)	3,000	5,000	24,000
지름(mm)	18	21	46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규격별 배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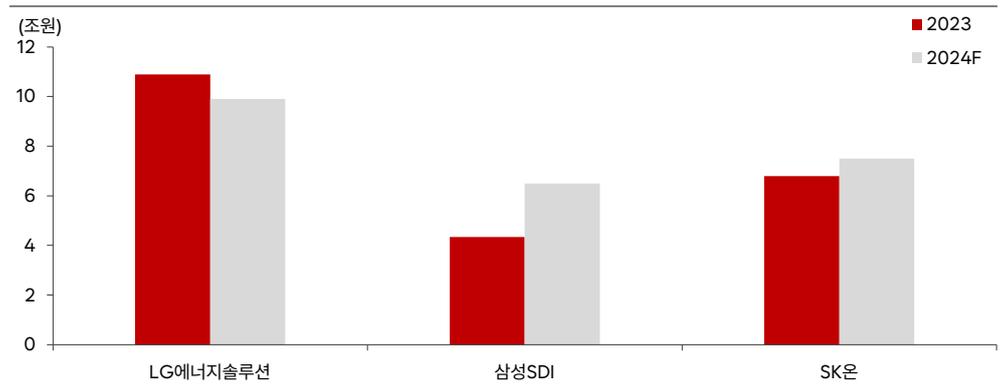


자료: Battery Desig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배터리 3사의 CAPA 투자 계획은 조금씩 다른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최근 전기차 수요 성장을 둔화 등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CAPEX 집행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반면 삼성SDI는 전년대비 약 50%의 CAPEX 증가가 예상된다. 내년 초 46mm 배터리 양산을 위해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북미 지역 단독 배터리 생산 공장 건립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주요 고객사인 BMW와 Stellantis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2024년 국내 업체의 CAPEX 계획은 당초 대비 줄어들어도 CAPEX의 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680 배터리로의 규격 변화와 고객사들의 양산, 그리고 중장기적인 고객사 CAPA 확대에 따라 동사의 2차전지 총방 전용 테스트 Pin 성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3사 CAPEX



자료: W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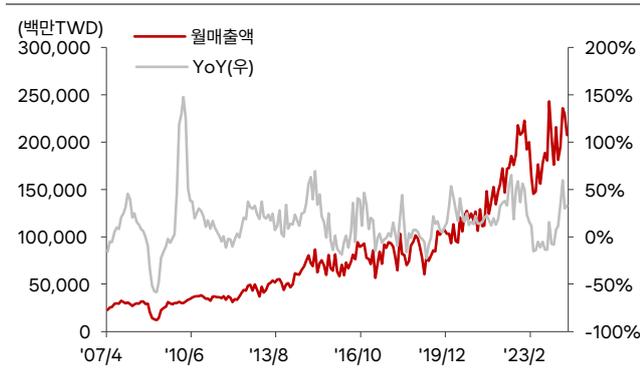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칩 생산 증가는 Pin 수요에 긍정적

주요 파운드리 및 OSAT 업체의 성장에 따라 반도체 테스트 Pin 매출 회복 기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동사의 반도체 테스트 Pin 매출 반등이 기대된다. 동사의 반도체 매출액은 2022년 218억원을 기록한 이후 반도체 업황 둔화와 감산으로 인해 2023년 132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2024년에는 반도체 수요가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동사의 제품은 비메모리 비중이 높은 만큼 Foundry 업체의 실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선단공정과 레거시 공정의 대표적인 Foundry 업체인 TSMC와 UMC의 월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24년 연초부터 전년대비 매출액이 성장세로 돌아섰다. TSMC는 AI 반도체 수요와 더불어 1월부터 매출액이 반등했으며 UMC는 2월부터 소폭 증가하였다. 아직은 AI를 중심으로 한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세가 강한 만큼 TSMC의 매출액 성장세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OSAT 업체인 ASE는 14개월 연속 감소하던 매출액이 1월부터 전년대비 반등하기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On-device AI를 탑재한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Foundry와 OSAT 업체의 실적 및 가동률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칩 출하량이 증가하는 만큼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기 때문에 동사의 테스트 Pin 물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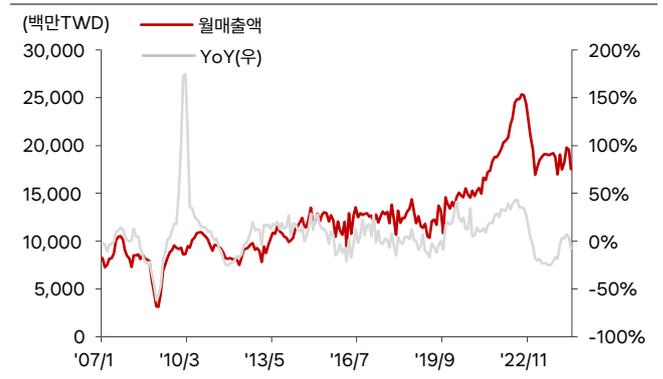
동사는 2023년 FormFactor의 신규 공급사로 선정되며 고객사 확대를 이루었으며 베트남 조립 라인 투자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TSMC 월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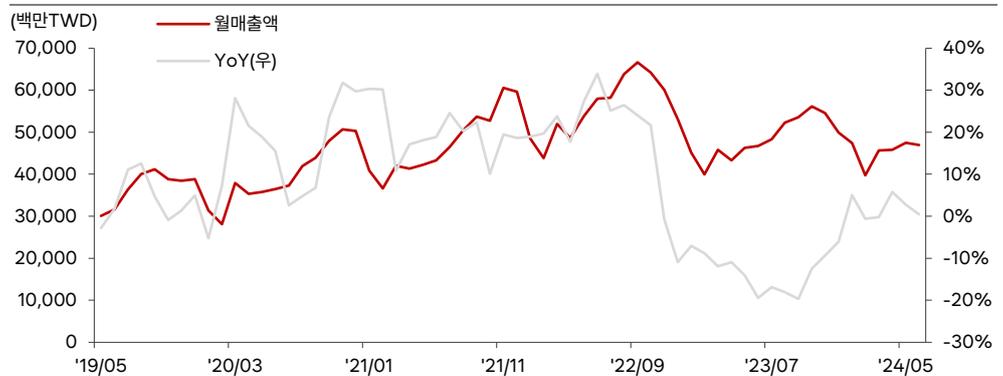
자료: TSM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UMC 월별 매출액 추이



자료: UM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SE Holdings 월별 매출액 추이



자료: ASE Holding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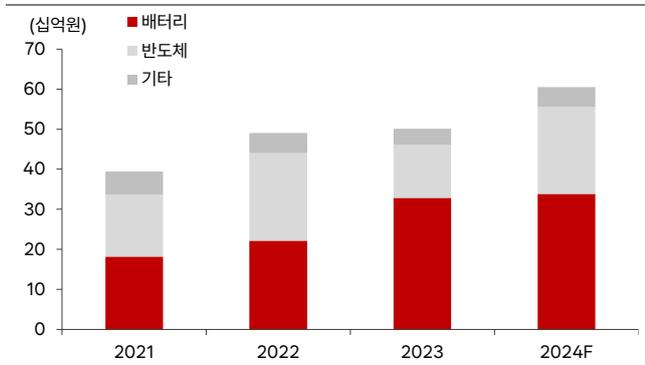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2023년 배터리 호조에도 반도체 업황 둔화 영향으로 적자전환

2023년
매출액 501억원(+2.2% YoY),
영업손실 2.5억원(적자전환 YoY)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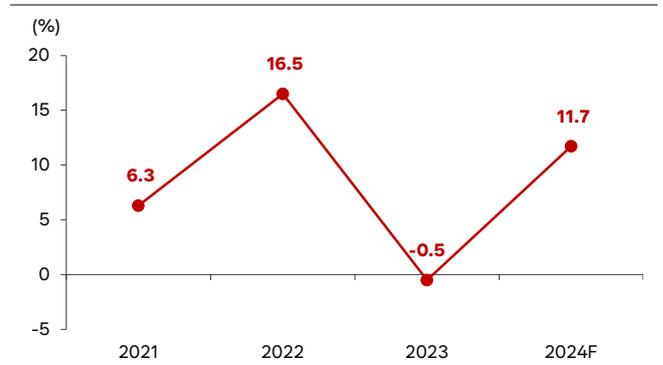
2023년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 501억원(+2.2% YoY), 영업손실 2.5억원(적자전환 YoY)을 기록하였다. 전기차 판매 호조와 배터리 고객사들의 CAPA 확대로 동사의 배터리 부문 매출액도 329억원으로 +48.6% YoY 증가하였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른 고객사들의 감산 영향으로 동사의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39.6% YoY 감소한 132억원을 기록하며 배터리 부문의 성장이 상쇄되었다. 반도체 매출액 축소 영향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IPO 관련 비용이 반영되며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메가터치 부문별 연간 실적 추이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가터치 연간 OP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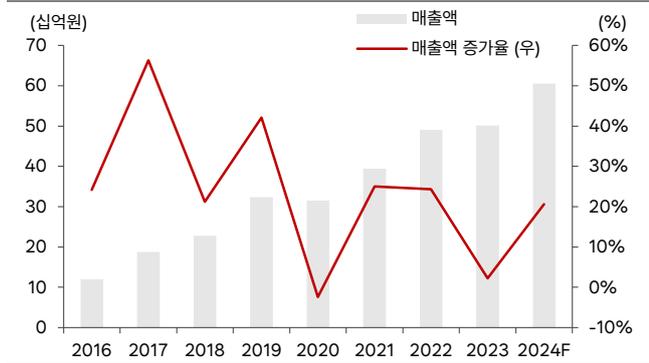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회복하나 배터리 성장성 둔화하는 2024년

2024F 매출액
605억원(+20.6% YoY),
영업이익 71억원(흑자전환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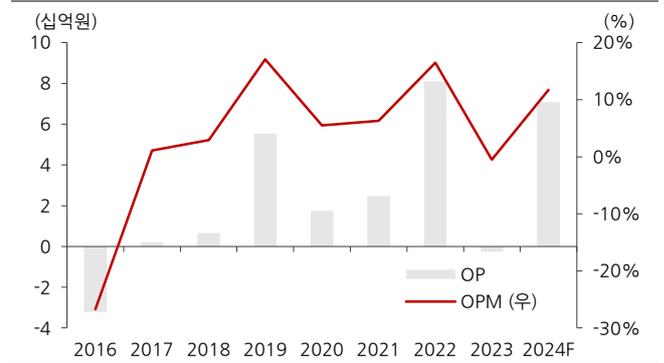
2024F 동사의 매출액 605억원(+20.6% YoY), 영업이익 71억원(흑자전환 YoY)을 전망한다. 전기차 수요 성장률 둔화에 따라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은 당초 계획대비 CAPEX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의 Pin 수요 증가폭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부문은 이미 수주받은 물량이 공급되고 8월부터 LG에너지솔루션이 오창 공장에서 4680 셀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3.0% YoY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도체 부문은 전반적인 수요 개선에 힘입어 큰 폭의 매출액 증가가 기대된다. 현재 AI 중심 수요 강세에서 하반기에는 On-Device PC, 스마트폰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Foundry와 OSAT 업체의 가동을 회복이 예상되고 동사의 테스트 Pin 물량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217억원으로 +64.8% YoY 증가가 기대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반도체 부문의 매출액 회복에 힘입어 영업이익률 11.7%를 전망한다.

메가터치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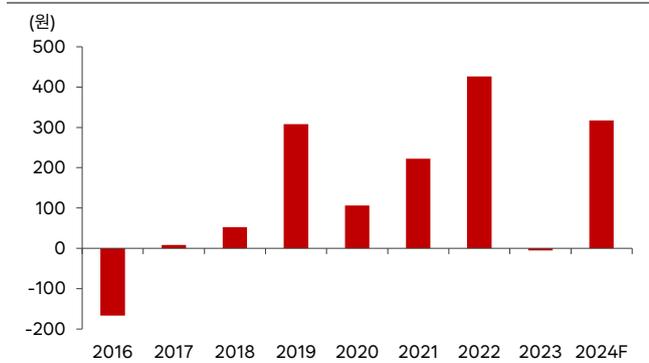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가터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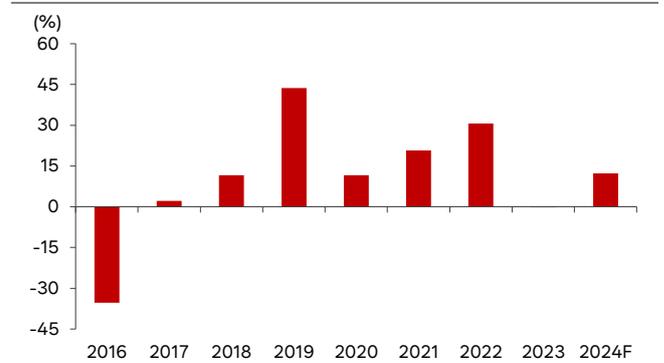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가터치 EPS 추이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가터치 ROE 추이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가터치 부문별 실적

(단위: 십억원)

	1Q24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	10.9	39	49	50.1	60.5
배터리	5.3	18.2	22.1	32.9	33.9
반도체	4.5	15.5	21.9	13.2	21.7
기타	1.0	5.7	5.1	4.1	4.9
영업이익	2.3	2.5	8.1	-0.3	7.1
지배주주순이익	2.1	3.4	6.6	-0.1	6.6
Margin(%)					
영업이익률	21.6	6.3	16.5	-0.5	11.7
지배주주순이익률	19.5	8.7	13.4	-0.2	10.9
YoYGrowth(%)					
매출액	N/A	25.0	24.3	2.2	20.6
배터리	N/A	N/A	21.6	48.6	3.0
반도체	N/A	N/A	40.9	-39.6	64.8
기타	N/A	N/A	-11.8	-19.5	20.0
영업이익	N/A	42.4	226.7	적전	흑전
지배주주순이익	N/A	109.6	91.8	적전	흑전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2024F PBR 1.8x 수준

**전기차 시장 지속 성장과 해외
고객사 다변화 이룰 시
Valuation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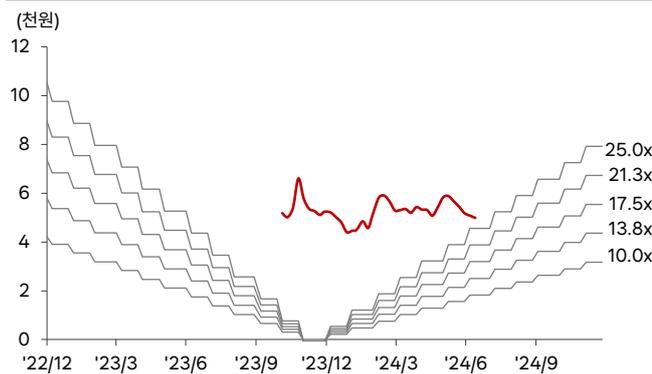
동사의 현주가는 2024F PBR 1.8x로 상장 이후 PBR 밴드의 중하단에 위치해 있다. Peer 업체로는 프로브 Pin 및 테스트 소켓 Pin을 제조하는 반도체 부품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 중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업체는 리노공업과 ISC 두 업체이다. 두 업체의 2024F 평균 PBR은 3.7x 수준이다. 두 업체는 Pin 보다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각각 포고 타입과 러버 타입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대적인 높은 Valuation을 부여받고 있는 이유라 판단된다. 최근 전기차 성장을 둔화 우려는 동사 Valuation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2차전지 전방 시장인 전기차 시장 성장 지속과 함께 동사 역시 해외 고객사로의 다변화가 이루어진다면 Valuation 확대도 기대할 만하다 판단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원)	시가총액 (십억원)	매출액(십억원)			PER(배)			PBR(배)		
			2022	2023	2024F	2022	2023	2024F	2022	2023	2024F
코스피	2,795	2,204,878	3,583,919	3,530,937	2,897,628	-	-	10.9	-	-	1.0
코스닥	829	404,458	326,869	331,733	121,012	-	-	24.1	-	-	2.4
메가터치	4,850	101	49	50	60	-	N/A	15.3	-	2.1	1.8
ISC	219,500	3,346	322	256	289	20.7	27.8	28.7	4.8	5.5	5.3
리노공업	55,200	1,170	179	140	226	12.4	111.5	18.9	2.0	3.5	2.1
오킨스전자	7,640	135	64	57	-	114.1	148.5	-	9.8	4.3	-
마이크로컨텍솔	8,050	67	61	65	-	6.1	15.7	-	0.9	2.1	-
동종그룹평균						38.3	75.9	23.8	4.4	3.9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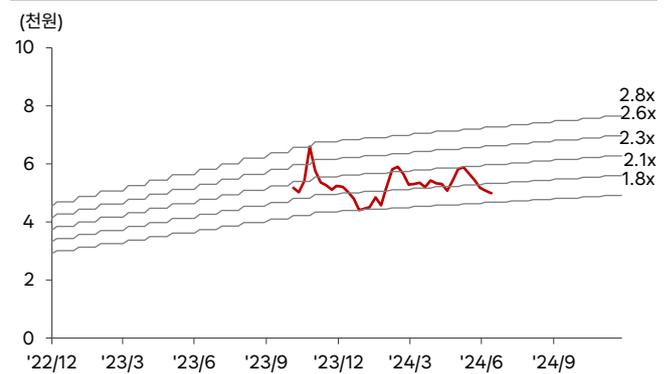
주: 2024년 7월 18일 종가 기준, 2024F - ISC, 리노공업은 시장 컨센서스 적용
자료: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메가터치 PER Band



자료: WiseFN,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메가터치 PBR Band



자료: WiseFN,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IRA 정책 수정과 소량 생산 중인 반도체

배터리 부문 IRA 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 존재, 반도체 부문은 점유율 낮으나 신규 고객사 확보와 베트남 생산 라인 구축으로 개선 기대

동사의 리스크는 배터리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될 경우 IRA 및 전기차 관련 정책의 수정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IRA의 부분 철회 및 수정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및 보조금 축소가 예상된다. 2차전지 제조에 대한 혜택 역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적 변화로 전기차 수요 둔화 및 2차전지 업체의 투자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동사와 같은 부품 업체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반도체는 낮은 점유율에 따른 소량 생산이 리스크 요소이다. 반도체 Pin의 경우 고정비가 높아 대량 생산시에 높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리노공업과 ISC의 경우 대량생산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30~45%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사는 시장 점유율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소량생산에 따라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반면 고객사 측면에서는 FormFactor와 같은 의미 있는 신규 고객사를 추가 확보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며, 베트남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개선을 점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 판단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	316	395	490	501	605
증가율(%)	-2.4	25.0	24.3	2.2	20.6
매출원가	264	340	377	451	480
매출원가율(%)	83.5	86.1	76.9	90.0	79.3
매출총이익	51	55	113	51	125
매출이익률(%)	16.2	13.9	23.1	10.1	20.7
판매관리비	34	30	32	53	54
판매비율(%)	10.8	7.6	6.5	10.6	8.9
EBITDA	33	49	103	23	137
EBITDA 이익률(%)	10.4	12.5	21.1	4.5	22.6
증가율(%)	-54.0	49.9	110.5	-78.2	507.2
영업이익	17	25	81	-3	71
영업이익률(%)	5.5	6.3	16.5	-0.5	11.7
증가율(%)	-68.5	42.4	226.7	적전	흑전
영업외손익	-3	8	0	-0	12
금융수익	0	6	14	16	18
금융비용	3	4	20	19	8
기타영업외손익	-1	7	6	2	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4	33	81	-3	83
증가율(%)	-75.9	131.4	147.7	적전	흑전
법인세비용	-2	-1	16	-2	17
계속사업이익	16	34	66	-1	66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6	34	66	-1	66
당기순이익률(%)	5.2	8.7	13.4	-0.2	10.9
증가율(%)	-65.6	109.6	91.8	적전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6	34	66	-1	66

현금흐름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1	16	42	-41	146
당기순이익	16	34	66	-1	66
유형자산 상각비	14	23	21	25	66
무형자산 상각비	2	2	2	0	0
외환손익	1	0	10	4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1	-48	-66	-73	14
기타	27	5	9	4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6	-29	-59	-98	-10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9	-19	-67	-97	-103
기타	-7	-10	8	-1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6	-23	11	267	-50
차입금의 증가(감소)	26	-21	12	13	-5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257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0	-2	-1	-3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감소)	31	-37	-7	129	-7
기초현금	18	49	12	6	134
기말현금	49	12	6	134	127

재무상태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유동자산	169	194	231	402	395
현금성자산	49	12	6	134	127
단기투자자산	0	12	0	0	0
매출채권	57	117	161	219	202
재고자산	45	45	53	41	57
기타유동자산	18	7	11	7	9
비유동자산	129	143	189	265	302
유형자산	111	95	145	232	270
무형자산	3	2	0	0	0
투자자산	1	1	0	1	1
기타비유동자산	14	45	44	32	31
자산총계	298	337	419	667	697
유동부채	121	128	168	149	113
단기차입금	90	70	89	102	52
매입채무	8	25	26	15	24
기타유동부채	23	33	53	32	37
비유동부채	29	27	4	17	17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29	23	0	12	12
기타비유동부채	0	4	4	5	5
부채총계	149	155	172	166	130
지배주주지분	149	182	248	501	567
자본금	77	77	77	104	104
자본잉여금	57	57	57	285	285
자본조정 등	0	0	0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15	48	114	113	179
자본총계	149	182	248	501	567

주요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F
P/E(배)	0.0	0.0	0.0	N/A	15.3
P/B(배)	0.0	0.0	0.0	2.1	1.8
P/S(배)	0.0	0.0	0.0	1.7	1.7
EV/EBITDA(배)	2.1	1.6	1.1	46.9	7.0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106	222	427	-5	317
BPS(원)	965	1,182	1,608	2,414	2,731
SPS(원)	2,047	2,559	3,182	3,080	2,912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1.6	20.7	30.6	-0.2	12.3
ROA	5.8	10.8	17.4	-0.2	9.6
ROIC	9.5	7.2	26.5	-1.2	11.7
안정성(%)					
유동비율	140.0	151.3	137.6	269.6	348.4
부채비율	100.3	85.0	69.2	33.1	22.9
순차입금비율	47.2	44.1	44.5	-1.0	-8.4
이자보상배율	6.7	7.8	26.7	-0.6	18.9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1	1.2	1.3	0.9	0.9
매출채권회전율	4.0	4.5	3.5	2.6	2.9
재고자산회전율	6.3	8.8	10.0	10.6	12.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메가터치	X	X	X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에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